

# 전남도청 최세빈,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사브르 단체전 금메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체전 정상 차지...2연패

김용을 총감독 "열심히 준비해 좋은 활약 펼칠 것"

전남도청 펜싱팀 최세빈 선수가 국제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라남도는 전남도청 펜싱팀 최세빈(사브르)이 중국 우시에서 열린 '2023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여자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해 중국을 45-40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밝혔다.

최세빈(전남도청), 전은혜(인천중구청), 윤지수, 홍하은(이상 서울특별시청)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16강전에서 부진승을 하며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싱가포르를 만나 45:32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에서 홍콩에 45:34로 승리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개최국인 중국을 만나 45:40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올해 멤버가 대폭교체 됐음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정상을 차지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우수한 경기력으로 2023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과 전라남도의 위상과 명예를 높여줘 매우 자랑

스럽고 고맙다"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을 대표팀 총감독(전남도청 감독)은 "멤버가 대폭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오는 9월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에서도 열심히 준비해 좋은 활약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세빈은 지난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획득 한바 있으며, 지난 3월 싱가포르 월드컵에 이어 이번 아시아선수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5연속 국제대회 입상을 하는 쾌거를 거뒀다.

좋은 경기력을 펼치는 만큼 오는 9월 예정인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과 10월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단체전 정상을 차지한 대한민국 여자사브르 대표팀. 왼쪽부터 전은혜(인천중구청), 최세빈(전남도청), 홍하은(서울시청), 윤지수(서울시청)

## 전남 수영 꿈나무, 광주전국수영선수권서 금빛 물살

금 4·은 7·동 1개 등 총 12개 메달 획득...영암초·장성사창초·여수한려초 등 활약 돋보여



영암초 수영부 단체사진(왼쪽부터 장운, 문강우, 김윤성(아래), 김수민, 이아람, 김영진 코치(위))

전남 수영 꿈나무들이 제2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쳤다.

전남수영연맹(회장 황의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2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에서 영암초, 장성사창초, 여수한려초 전남수영 꿈나무들이 금메달 4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먼저, 영암초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암초 문강우(6학년)는 초등부 배영 50m에 출전해 31.66초로 예선 1위로 통과, 결승에서 31.53초를 기록해 금메달을 획득했고, 영암초 김윤성(4학년)은 유년부 접영 100m에 출전, 1:17.12초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어서, 문강우가 배영 100m에서 은메달을 추가, 김윤성도 배영 50m에서 출전해 은메달을 추가했다.

또, 김수민(6학년)이 여초부 배영100m와 200m에 출전해 각각 1:10.58초와 2:33.23초의 기록을 세우며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고, 이아람(6학년)이 여초부 자유형 100m에서 1:02.37초로 1위와 0.15초 차이로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고, 자유형 50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영암초는 초등부 혼성혼계영 400m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장성사창초에서는 박현종(6학년)이 남초부 자유형 400m에서 4:40.96초로 금메달을 획득, 자유형 200m에서 2:12.86초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여수한려초에서도 최하람(6학년)이 남초부 평영100m에 출전, 1:18.01로 1위로 예선을 통과, 결승에서 1:16.47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의준 전남수영연맹 회장은 "전국대회라는 큰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친 우리 전남 수영 꿈나무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장차 한국체육을 이끌어갈 재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남자부 세단뛰기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한 김장우(왼쪽 3번째)



여자부 해머던지기 금메달을 차지한 후 단체사진을 찍는 박서진(왼쪽 3번째)

## 전남육상, 제27회 전국실업선수권서 우수한 성적

금 3, 은 5, 동 4개 등 총 12개 메달...장흥군청 김장우 세단뛰기 대회신기록

전남 소속 육상팀 다수가 전국실업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펼쳤다.

전라남도육상연맹(회장 김용주)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남 나주(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7회 나주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에서 도내 소속 육상 실업팀 다수가 좋은 성적을 거둬 금메달 3, 은메달 5, 동메달 4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14일 남자부 세단뛰기에 출전한 장흥군청 김장우(24)는 3차시기에서 16.50m를 뛰어 일찌감치 금메달을 확보, 대회 신기록을 세웠고, 6차시기 16.73m를 뛰어 다시 한번 신기록을 갱신하며 남수환(제주시청, 15.53m)과 김동한(안동시청, 15.49m)을 압도하며 1위를 차지했다.

여자 해머던지기 1인자 박서진(목포시청, 31)이 57m57를 던져 금메달을 획득했고, 400m에서 이아영(광양시청, 28)이 56.69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어서, 남자부 해머던지기 출전한 김진(목포시청, 24)이 61.26m로 은메달, 여자부

1000m에서 여수시청 김은미(32)가 36:17.45로 은메달, 여자부 높이뛰기에서 여수시청 김은정(27)이 1m60으로 은메달, 여자부 포환던지기에서 목포시청 정소은(23)이 15m09로 은메달, 여자부 해머던지기에서 장흥군청 권수아(30)가 54m42를 던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동메달은 남자부 10종경기에 출전한 이승호(광양시청, 32)가 3,297점으로 동메달, 남자부 800m에서 김동욱(나주시청, 21)이 1:53.00으로 동메달, 여자부 5000m에 출전한 김은미(여수시청, 32)이 동메달, 여자부 4x800mR에 해남군청 박기란(32), 신미란(29), 김현진(24), 이규민(21)이 조를 이뤄 10:04.09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용주 전남육상연맹회장은 "우리 전남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이 같은 성적을 올린데에는 지역실업팀 감독 및 코치님들이 잘 지도해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 축하한다"고 말을 전했다.

정흥=김도영기자



## K리그 전남 드래곤즈

### 공격수 레오 미키치 영입

전남은 공격수 레오 미키치(등록명: 미키치)를 영입하였다.

180cm 75kg의 다부진 체형인 미키치는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러다.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미키치는 볼을 연계하고 공간 침투를 통해 유효슈팅을 만들어낸다.

전남은 미키치 영입을 통해 공격력을 강화하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국적인 미키치는 최근 21/22시즌과 22/23시즌동안 SV RIED(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1부)에서 56경기 출전 7득점 2도움을 기록하였다.

전남에 입단한 미키치는 "매우 설레고 기쁘다. K리그와 전남드래곤즈를 많이 듣고 보았다. 전남드래곤즈에 입단하여 흥경기장에 와보니 더욱 설레고 프로페셔널한 것 같다. 팀이 목표하는 순위에 올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입단 소감을 밝혔다.

여수다솜어린이집은 미키치의 전남 입단을 환영하며 함께 단체사진 촬영으로 기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순천제일고, 정읍 내장산배 전국 중·고배구대회 우승

3학년 임정식 최우수선수상·2학년 백수현 공격상 등 수상

순천제일고등학교 배구부가 전국배구대회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펼쳐며 고등부 전국최강임을 입증했다.

전남배구협회(회장 조재만)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정읍에서 개최된 '2023 정읍내장산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에서 순천제일고등학교 배구팀이 결승에서 수원 수성고를 3-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남중 감독과 정정운 코치가 이끄는 순천제일고는 21일 전북 정읍시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고부 결승전에서 수원 수성고를 만나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우승과 더불어 뛰어난 활약을 펼친 임정식

(순천제일고 3년)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백수현(순천제일고 2년)이 공격상, 최보민(순천제일고 3년)이 리베로상, 임태호(순천제일고 2년)가 레프트상, 정정운 코치가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남중 순천제일고 감독은 "서로 믿고 소통하며 좋은 경기력을 펼쳐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다. 7월에 영광에서 열리는 제56회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 황의조에 무관심한 노팅엄...A매치 득점에도 흠피 잠잠

축구 국가대표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31)가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노팅엄포레스트 복귀를 꾀하고 있지만 정작 소속팀은 황의조에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23 19라운드 수원삼성과의 슈퍼매치 맞대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를 끝으로 황의조는 유럽 무대 재도전을 선언했다. 경기 후 황의조는 "노팅엄 구단과 얘기를 하고 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과 계약이 끝난 뒤 그다음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노팅엄으로 이적한 황의조는 바로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으로 임대됐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올해 한국 FC서울로 재차 임대됐다. 서울과 계약은 이달 말로 끝난다.

황의조는 노팅엄으로 복귀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하려 하지만 정작 소속팀은 황의조에 관심이 없는 듯 한 모양새다.

노팅엄은 공식 누리집 선수 명단에 황의조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노팅엄은 타 구단으로 임대된 선수 8명 이름과 포지션, 임대 대상



구단, 임대 기간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에 황의조는 없다.

아울러 노팅엄은 소식 선수들의 6월 A매치 활약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황의조 소식은 없다. 황의조는 지난 20일 엘살바도르전에서 화려한 개인기를 자랑하며 골을 터뜨렸지만 노팅엄은 이 사실을 팬들에게 전하지 않았다. 반면 노팅엄은 A매치에서 골을 넣지 못한 선수들은 물론 교체 출전한 선수들 소식까지 세세하게 나열했다.

엄연히 소속 선수인 황의조가 골 감각을 회복했음에도 노팅엄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황의조의 복귀를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황의조가 재임대 또는 이적을 통해 FC서울에서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